“영어로 수업 못할 것도 없지요”

■‘영어수업 준비 교사 스터디’ 가 보니

광주지역 교사·강사·예비교사 참여

“동영상 등 활용땐 결코 어렵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어몰입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과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가 얼마나 있겠는가’를 둘러싼 의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지난 26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대 정문 앞 한 동아리방에는 10여명이 참가하는 ‘영어수업 준비 교사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직 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학원 강사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만났다. 참가자의 구성은 다양했지만, 뚜렷한 목표의식 때문인지 분위기는 진지했다.

스터디 개설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의 인터넷 모임인 ‘광주영어회화클럽’(cafe.daum.net/Powerenglish)이 주도했다. ‘광주영어회화클럽’에는 시네마 영어, 뉴스 영어 등 주제별 스터디가 30여개 개설돼 있다.

운영자 문성현(34)씨는 “영어로 수업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교사 또는 예비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스터디를 개설하게 됐다”며 “공고를 띄운 지 일주일 만에 정원 50명이 꽉 찼다”고 말했다. 50명의 회원들은 5개 반으로 나뉘어 화·수·목·토·일요일에 10명씩 각각 그룹스터디를 하게 된다.

스터디 첫 날인 이날, 이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해야할 지 큰 틀을 정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날 선출된 반장과 학습부장은 갖가지 학습자료를 구해 구성원의 스터디를 돕게 된다. 참석자 중 3명은 현직 교사이고, 2명은 사교육 강사, 4명은 예비교사였다.

반장으로 선출된 교사 배주아(여·24·진월초)씨는 “대학에 다닐 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자료도 실제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았다”며 “스터디를 통해 영어로 가르치는 ‘스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운영자가 미리 준비한 영어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의견을 나눴다. 운영자 문씨는 “초등과 중등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수업 스타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터디도 나눠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동영상이나 발음 음향 자료 등을 잘 활용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편집하는 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한 참가자는 “영어는 담당교사가 있어서 수업을 해본적이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 등을 봤을 때 익혀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게 됐다”며 “초등과 중등 부문을 나눠서 더 심도있게 공부한다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일곡지구에서 보습학원 수학강사로 일하는 최희철(34)씨는 “민사고나 특목고 준비 학생을 위해 수학 과목 영어수업을 이미 진행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수학의 경우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활용법 등을 더 공부하려고 스터디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배주아씨는 “교실영어는 자주 조사가 생략되는 등 일상회화와는 또 달라서 숙달이 필요하지만 결코 어려운 것 만은 아니다”며 “프리젠테이션 파일이나 동영상, 노래, 카드 등을 이용하는 법도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현직 교사 등으로 이뤄진 ‘영어몰입교육’ 스터디 회원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옥소리 담당판사 간통죄 위헌 제청

헌재 판결 확정 때까지 재판 잠정 중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소리 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은 명백한 반면 (이혼율 저하 등)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9일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해 헌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전남 나무심기 좋은날

3월1일~4월10일

산림청은 27일 지역별 나무심기에 적합한 시기로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은 3월 1일~4월 10일, 중부지방(충청, 전북, 경북)은 3월 11일~4월 20일, 북부지방(경기, 강원)은 3월 21일~4월 30일을 각각 추천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올해 본인 소유 산에 나무를 심는 산주에게는 1ha당 260여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ha의 산에 4년생 잣나무 묘목 3천그루를 심는 데 들어가는 비용 292만원의 90%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림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주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조림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청 차원의 올첫 나무심기행사를 28일 신안군 압해면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본격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확대, 올해 총 4천200만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강제 입원 중단 하라”

인권위, 7개 정신병원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광주시 C병원 등 전국 7개 정신병원에 대해 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병원들이 환자의 뜻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을 기피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퇴원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선택해 장기수용으로 이익을 더 올려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한편 국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은 채 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시킨 광주 C정신병원 원장 주모(51)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학대,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모(55)씨, 원무팀장 전모(40)씨, 전(前) 원무팀장 윤모(51)씨 3명도 감금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포근한 봄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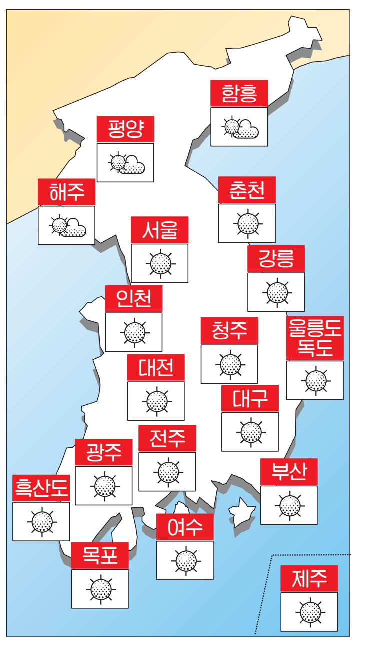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2월 28일 (음 1월 22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2~13℃
목 포	맑음	-1~12℃
여 수	맑음	1~12℃
완 도	맑음	-1~12℃
구 례	맑음	-5~13℃
해 남	맑음	-4~12℃
장 흥	맑음	-5~13℃
고 흥	맑음	-4~14℃
순 천	맑음	-5~13℃
영 광	맑음	-4~10℃
진 도	맑음	-2~12℃
전 주	맑음	-3~12℃
남 원	맑음	-5~13℃
흑산도	맑음	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6:23 18:03 썰물 〈 11:25 23:30
여 수 밀물 〈 00:48 12:37 썰물 〈 06:49 18:46

▲해뜸 07:05 ▲해짐 18:26 ▲달뜸 00:32 ▲달짐 10: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금)	3/1(토)	2(일)	3(월)	4(화)	5(수)
날 씨						
최저/최고	0/12	-2/11	3/6	0/7	-2/8	-2/10

지리산·월출산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건조기 산불 예방

봄철 건조기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리산과 월출산 일부 탐방로가 출입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8구간(113.9㎞)과 월출산 산성치~광암터 등 2구간(3.0㎞)에 대해 출입통제 한다. 이 구간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큰 주 탐방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등 19구간(85.4㎞)과 월출산 천황사~도갑사 등 5구간(16.5㎞) 등 24개 탐방로는 계속 개방한다.

공원명	통제탐방로	길이(㎞)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23.80
	대성리~세석평전	8.80
	거림~1400고지	5.50
	치밭목~천왕봉	4.00
	유평마을~갈림길	4.40
	두지동~천왕봉	7.30
	가내소~세석평전	3.80
	의신~벽소령	6.80
	음정~벽소령	6.70
	청학동~삼신봉~갈림길	7.70
	불일폭포~삼신봉, 상불재~ 삼성궁입구	8.40
	범왕교~토끼봉	4.90
	피아골대피소~임걸령	2.50
	만복대~성삼재	5.30
	당동~당동고개	3.50
	뱀사골공원지킴터~삼도봉~반야봉	1.50
	쟁기소~ 반야봉	7.00
	만복대~ 정령치	2.00
월출산	산성치~광암터	1.00
	무위사~미왕재	2.00

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자나 흡연자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법적 분쟁 마무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상영을 둘러싼 제작사 MK픽처스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장남 박지만씨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8일 항소심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3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영화사는 ‘그때 그 사람들’ 상영시 박씨가 요구한 ‘이 영화는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라는 자막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신 박씨는 2006년 8월 1심 판결시 선고된 가지급금 1억 원을 영화사에 반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